

CSU Monthly 2026년 10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WEEKLY Headline

- 9월 첫째 주: 인문학연구원, 개교 80주년 기념학술대회 '문병란의 시와 시대의 기억' 개최
- 9월 둘째 주: 조선대, 전 구성원 대상 멀티 LLM 서비스 'CSU AI' 개시
- 9월 셋째 주: "헛간에서라도 가르쳐 민족문화 건설" 국내 첫 민립대학, 조선대 '80주년'
- 9월 넷째 주: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 성료**

조선대, 개교 80주년 기념식 성료... '글로벌 TOP 대학' 비전 선포

민형배 시장·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참석... 민립대학 80년 역사와 미래 함께 그려

설립동지회 기념탑 참배·108계단 동판 제막·민주열사 헌정 공연까지

저녁에는 800여 명 함께한 'CSU 한마음콘서트'...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7만 2천여 시민의 뜻으로 세워진 조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조선대학교는 9월 18일 오후 2시 해오름관에서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정진욱 의원, 문금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회 송형곤 의장 등을 비롯해 대학의 주요 동문과 인사들이 참석해 개교 8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108계단 역사 수록 동판' 제막식이 열렸다. 108계단에는 1946년부터 2011년까지 조선대학교의 역사를 수록한 33개의 동판이 설치돼 있다.

이번 개교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수록한 34번째 동판에는 구경영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대학 설립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운 과정과 함께,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았다.

이어 조선대학교 설립기념탑을 찾아 헌화·참배하며, 1946년 7만 2천여 설립동지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진 민립대학의 역사적 뿌리와 건학 정신을 기렸다.

오후 기념식 본식은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민주열사 헌정 공연, 개교 80주년 비전 발표·선포, 태권도 공연 'TIME 1946-2026', 포상 및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춘성 총장은 이날 '지역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TOP 대학(Anchoring Our Region, Global TOP University)'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으로 제시하며 ▲Beyond campus(열린대학) ▲Personalized education(개성교육) ▲Empowered(지속가능) ▲Global(글로벌) 4가지 핵심 가치를 발표했다.

80년 전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출발한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을 계승해 교육과 연구의 영역을 지역과 세계로 넓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대학'으로 혁신해 학생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선대학교의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한 열사들을 기리는 헌정 판소리 공연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조선대는 대학의 역사를 기억하고 장미공원에 헌정 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학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해오름관에서는 개교 80주년 기념 'CSU 한마음콘서트'가 열렸다.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민 등 약 8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조선대 학생 밴드 '개라반'과 공연예술무용과, 동구합창단에 이어 초청가수 김산옥·허각·인순이가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특히 조선대와 해밀학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가수 인순이는 "시민의 뜻으로 세워진 조선대의 설립 역사가 마음 깊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렇게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고 말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조선대학교는 7만 2천여 설립동지와 지역민의 뜻으로 시작된 민립의 정신을 미래의 가치로 이어가며, 앞으로도 사람과 지역의 가능성을 키우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계획이다.



조선대, 116억 규모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AI스타펠로우십)사업 선정

‘웰에이징 AI’ 연구 본격화...

인지·돌봄·신체기능 아우르는 지역주도형 AI 연구 추진

조선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AI스타펠로우십)사업’에 선정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웰에이징 AI(Well-aging AI)’ 연구를 본격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조선대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6개월 간 총 116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위험 조기예측, 돌봄·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피지컬 AI(Physical AI), 근감소증 및 수술 후 기능회복 예측 등 고령자의 인지기능과 안전, 신체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AI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변재영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을 맡고 권구락·조승환·전찬준·김원열·김대호·이건우·임철기·김원·박정희 교수 등 참여 교원 9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교원이 연구에 참여한다. 세부 프로젝트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주)코랩과 (주)나눔테크가 참여하며, 조선대학교병원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연구의 핵심은 고령사회 문제를 개별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인지기능-돌봄안전-신체기능’이라는 하나의 웰에이징 관점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3개 세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치매 조기예측, 돌봄·응급 대응, 기능회복 예측 AI 기술을 개발하며, 각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사회 생활데이터와 병원 입

상데이터, 의료영상, 로봇·의료기기 기술, 지역 AI 인프라를 한데 묶는다. 이를 통해 대학의 AI 연구역량에 조선대병원의 임상 전문성과 지역기업의 기술력을 결합, 지역의 실제 수요 발굴부터 데이터 확보, AI 개발, 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산·학·병 선순환 모델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신진 AI 연구자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3개 세부 프로젝트를 신진 연구자들이 PL (Project Leader)로서 직접 맡아 기획부터 데이터 확보, 모델 개발, 실증, 특허·논문 출원까지 연구 전 과정을 주도한다.

중견 멘토 연구자와 함께 석·박사 PBL(Project-Based Learning), 박사후연구원 참여, 국제공동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실효적 과제 관리와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독자적인 대형 연구를 이끌 핵심 인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AI-SW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변재영 교수



AI-SW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권구락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조승환 교수



AI-SW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전찬준 교수



AI-SW학부
(인공지능공학전공)
김원열 교수



AI-SW학부
(인공지능공학전공)
김대호 교수



AI-SW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이건우 교수



AI-SW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임철기 교수



AI-SW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김원 교수



의과대학
의예과
박정희 교수

조선대, 전 구성원 대상 멀티 LLM 서비스 'CSU AI' 개시

앵커 사업 일환으로 AI 활용 환경 구축...

9월 1일부터 포털 SSO 통해 정식 오픈

조선대학교 정보전산원이 구성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CSU AI'를 정식 개시했다.

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CSU AI는 여러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해 질의응답, 문서 작성과 요약, 번역, 아이디어 발굴, 자료 분석, 코딩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미지와 동영상 생성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자연어로 원하는 주제와 표현 방식 등을 입력해 업무 자료, 홍보 콘텐츠,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여러 모델의 답변을 비교하거나 문서·이미지 등의 자료를 첨부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CSU AI는 조선대학교 포털 서비스에 로그인한 뒤

SSO(Single Sign-On·통합인증)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별도의 서비스 계정을 만들거나 추가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기존 포털 인증 체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크레딧은 매월 새롭게 충전된다. 선택한 AI 모델과 이미지·동영상 생성 등을 포함한 기능별 이용량에 따라 차감되며, 사용 기능과 모델에 따라 같은 작업에도 소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는 작업 목적과 난이도를 고려해 적합한 모델과 기능을 선택함으로써 크레딧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는 정식 서비스 오픈에 앞서 테스트 운영을 시작해 접속 및 인증 체계, 주요 기능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이용 인원, 모델 및 기능별 사용량, 주요 활용 분야, 크레딧 사용 추이와 구성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용 추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델과 이미지·동영상 생성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nstagram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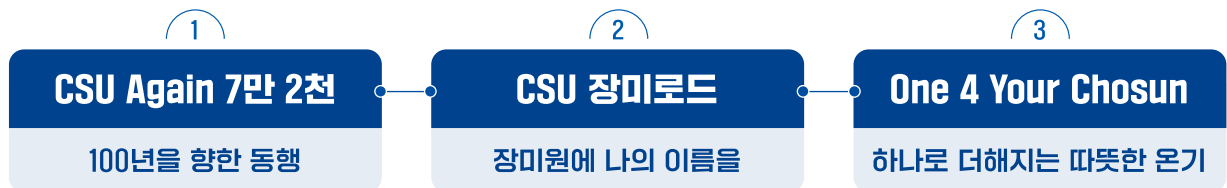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